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정책 토론회 연설문

**우리 모두의 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이루어집니다.**

2002년 10월 24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존경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우리들의 꿈나무인 유아들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말부터 10회인가 월요일마다 '한겨레신문' 교육섹션에 연재되었던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의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 시리즈 기사를 유심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경험이 오늘 새삼스레 기억납니다.

「내가 인생에서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책처럼, 유아교육은 한 개인의 평생교육의 출발이자 교육적 생애의 원천입니다. 또, 한 나라와 교육의 기반이자 미래이며, 나아가 진정한 잠재력이자 경쟁력입니다.

유아교육이 한 개인의 삶에서 교육적 생애의 출발이라면 교육기회와 출발점 평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몇 마디 말로써 다 설명될 수 없는 의미심장한 함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부문이 현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개의 정부부처가 중복 관할하는 '2원화 관리 체제'인데다, 이를 민간부문에 내맡겨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해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아교육·보육관련 통계수치의 별도관리, 정부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 행정상의 마찰, 지역적 편중, 시설의 난립,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 학부모의 시설선택 혼란, 교사양성의 문제, 관련 단체간·학계간의 알력 등 그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유아교육관계자 여러분!

21세기 평생학습시대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교육부총리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유아교육은 교육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에서의 성공은 세계화·정보화의 맥락과 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 모두 국가경쟁력의 진정한 원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선진국은 물론이려니와 개발도상국, 그리고 북한까지 유아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질 관리를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체

제화하며, 교육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적극적 노력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IMF위기로 말미암아 중산층 붕괴현상 속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원아모집 경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유아 사교육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열악해졌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아교육 기반이 무너졌던 아픈 현실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은 더욱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화>

유아교육개혁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기초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유아교육을 국민기초교육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질 관리 책임을 주도적으로 지는 공교육체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만 5세 무상교육화부터 실현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적극적 확보 노력과 함께, 지역과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해

갈 것입니다.

]이는 '교육을 통한, 교육의 복지화'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교육개혁 과제가 있다면, 유아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5세아동의 무상교육>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공교육화하여 기간학제화하고,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 3년 안에 완성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라도 추가 재정을 확보하여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소득층 자녀부터 시작된 무상교육화를 농·어촌지역,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가되,

3년 이내에 만 5세아 무상교육의 80%를 달성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의 나머지 20%는 만 4세 최저소득층으로 돌려 무상교육 확대의 연계고리를 구조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유아교육은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① 가까운 거리에서, ② 질 좋은 교육내용을, ③ 저렴한 비용으로, ④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⑤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질높은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적으면서도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시설 운영자에게는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운영에만 전념하게 하고, 교사들에게는 신분보장과 더불어 더욱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은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아이의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우리나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사실상 진정한 개혁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유아교육의 근본적 체제를 다져놓는 일이기도 하므로, 법제화를 위하여 차근차근 접근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별개의 입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을 제도적으로 독립시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과 함께 한국교육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유아 또는 유아교육

관련 법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교육법」이 속된 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유아교육문제는 대충 넘어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를 알고 나서 회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노·사간의 협상과 조정을 위해 노사분규 현장에도 직접 뛰어 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소망인 「유아교육법」 입법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유치원’ 명칭으로 유치원만이라도 공교육화하는 「유아교육법」이 여·야당 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이므로, 비록 아쉽더라도 이 수준의 「유아교육법」 제정만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버려져가고 있는 아이들과 무너져 가고 있는 유아교육 기반 자체가 유아교육개혁을 갈망하고 있으며, 더 지체한다면 더 큰 개혁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체제의 정비>

유아교육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면 유아교육의 체제정비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전문가,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 대표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결론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추진하여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 때 해결의 기본원칙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소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뿐입니다.

유아교육개혁은 작은 개혁이지만, 그 효과는 400만명 아이들과 800만명 학부모, 나아가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가 교육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사실상 매우 큰 개혁입니다.

나아가, 유아교육개혁은 IMF위기로 비롯된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교육차원의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networks) 구축작업입니다.

동시에, 교육복지제도의 초석을 마련해 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진하는 정책적 지향성에도 걸맞는 개혁입

니다.

우리 교육이 불신을 받고 어지럽지만, 유아교육부터 바로 세워 '새천년' 우리 나라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주도적 노력이 시대적 의지와 사회적 현실의 절실한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한국교육의 역사에 아로새깁시다.

아이와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들을 믿고 사랑하듯이 우리의 유아교육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러한 열기와 노력이라면, 여러분의 소망이 제대로 실현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이루어집니다. 지난 월드컵 때 보셨지 않습니까? 꿈은 실현됩니다. 저도 그 소망에 한 자락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였다 생각되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지켜보시고 더욱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